

# “치매 환자·가족에 도움되는 제품 만들고파”

●서말희마리우대표

### 2016년 7월께 설립한 ‘약 달력’ 회사…광주 하남산단에 위치 치매 노모 위해 개발…“기존 제품 보완·AI 콘텐츠 개발 목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서말희(45·여·사진) 마리우 대표는 치매환자·돌봄가정 아동들을 돕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리우는 지난 2016년 7월께 설립된 ‘약 달력’ 회사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해 있다. 치매환자를 위한 약 달력과 약지 등 판매한다.

약 달력은 2006년 중증 장애를 입은 아들의 치료를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생활하던 중 다음 해 함께 살던 노모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서 대표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자식과 노모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치매환자 특성상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증상이 지연되거나 매년 노모의 약을 챙기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 ‘눈에 띄는 곳에 약을 두자’라고 생각했고,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투명 아크릴판과 자석을 이용해 약 달력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서 대표는 7일 “어머니는 초로기치매였고 건 망증을 앓았다”며 “약을 직접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아 해결 방안을 고민하던 중 냉장고를 자주 이용하는 모습이 떠올라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약 달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약 달력이 필요해 보이는 혼자 사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했지만,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이에 서 대표는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학교·단체 등에 약 달력을 기부했다.



그러다 2016년 창업 붐이 일었고, 서 대표는 어머니와의 얘기를 담은 ‘예쁜 치매를 아십니까?’라는 이름으로 스토리 펀딩에 도전해 후원금 50만 원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사업도 재개했다.

약 달력은 현재까지 총 13만 장 이상이 판매되고 있으며 업체형 주머니가 있는 턱받이 앞치마

를 개발하는 등 치매 환자 편의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서 대표는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다. 약 달력을 따라 한 카페 제품이 생겨났고, 같이 일하는 협력 업체에서 특허권을 주장하며 교류를 끊기도 했다”며 “허탈함이 느껴졌지만, 이내 ‘상생’을 인정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좋은 일도 함께 찾아온다’는 마음으로 상황을 잘 이겨내려 한다”고 전했다.

올해 기존 제품을 보완하고 약 복용을 돕는 제품 개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연결해주는 인공지능(AI) 커뮤니티 콘텐츠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돕고자 월드비전, 밀알복지재단, 미혼모센터 등에 꾸준히 기부를 해 현재 누적 기부금이 1천만 원가량 된다. 최근에는 약 달력 100개를 초록우산 광주본부에 전달했으며 향후 사업이 확장되면 기부 활동도 넓혀갈 예정이다.

서 대표는 “매일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할 수 있다’를 되새기고 있다”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돕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들고 싶다”고 웃었다. /주성학 기자



장성우체국, 상록원서 ‘소원우체통’ 행사

장성우체국은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장성을 소재 아동양육시설 상록원에서 ‘2024년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소원우체통 사업은 ‘편지’와 ‘우체통’을 매개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린이가 가정의 달에 느낄 소외감을 달래 주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 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평소 받고 싶었던 선물을 소원을 편지에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 직원들이 선물을 구매해 전달하는 우체국 공익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록원 입소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하던 신발, 옷, 이어폰 등 약 150여만 원 상당의 소원 선물이 18명에게 전달됐다.

강인구 장성우체국장은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던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 산타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5월의 푸르른 산록처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김미숙 광주무악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

김미숙 광주무악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7일 광주무악여성라이온스클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 데일리웨딩홀컨벤션에서 김철옥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총재, 구제길 전 국제라이온스협회 이사,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연호 355-B1지구 차기 총재, 김경종 차기 1부총재, 최영·이은재 가이딩, 마장섭 무악라이온스클럽 회장, 박찬규 (주)세진엔지니어링 대표와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 및 제5·6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김미숙 신임 회장은 “역대 회장이 이룬 성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회원 간 서로 배려하면서 봉사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봉사는 내 옆자리를, 내 마음 한 편을, 내 주머니 한쪽을 내어주는 것”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며 행복한 동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성학 기자



## 광주대, 中 강서성서 청소년 태권도 친선교류대회

광주대학교는 “최근 중국 강서성 남창시 총장 홍왕스포츠포럼에서 ‘제1회 강서성 한중 청소년 태권도 친선교류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대학교와 중국 강서성의 우의 증진과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태권도에 관심 있는 강서성 초·중·고·대학생 등 3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품새와 겨루기 2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한국 태권도 교류 경기 대표팀 선발의 영예가 주어졌으며, 개인·혼성·단체 경기 1-3위에게는 메달과 증서가 수여됐

다. 중국 태권도 꿈나무들의 눈을 사로잡은 광주대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의 번의 경기도 큰 관심을 끌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태권도를 통해 하나된 광주대와 중국 강서성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중국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 정신을 몸으로 익혀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목포소방, 석탄일 대비 사찰 화재예방 점검

목포소방서는 “최근 박의승 서장이 죽교동에 위치한 사찰 달성사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달성사는 전남도 유형문화재 228호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보물 2011호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목포 유일의 사찰로 각별한 화재 예방이 요구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수의 인파가 사찰·법당 등에서 연등·촛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는 만큼,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달성사 관계자는 물론, 사찰을 찾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전남농기원, ‘창농기업 네트워킹 데이’ 성료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7일 “청년 창농타운 회원을 대상으로 창업전문기관과 ‘창농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창농 관련 기관과 기술전문가,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관에서 처음 개최하는 네트워킹 데이는 지속적인 교류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5월2일) ▲및업 네트워킹 데이(7월4일) ▲퍼실리테이션 네트워킹 데이(9월5일) ▲성과공유 네트워킹 데이(11월7일)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은 ▲관련 기관 소개 및 네트워킹 ▲로스리더상품 개발 및 우수 사례 특강 ▲MD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핵심 정보 특강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신청서 작성 그룹 멘토링 등이 다. /김재정 기자

##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정기총회 성료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은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이후 첫번째 정기총회를 지난 3일 월남전참전자회 북구지회 강당에서 개최했다.

총회에는 재정기 밀알중앙회 총재, 박기종 강사랑환경대학 학장, 고광현 강사랑환경대학 대표, 윤장준·정규대·강덕순·김형호·최승현·김수민·한정숙 이사, 이재철·김혜경 감사 등 모든 임원과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또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상임이사, 미국 뉴욕 태생으로 호남대 영문과 교수를 역임한 루이스 빈치계리 강사랑환경대학 참여활동기도 함께 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승



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올해 강사랑환경대학 과정과 환경정화 공익활동, 생태환경 명소 현장 탐방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정은정 기자

## 영광교육지원청, 어린이날 흥농유치원에 선물 전달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흥농유치원을 찾아 선물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과의 행복한 만남과 소통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이라는 기조를 어린이날과 접목한 이번 행사에서는 흥농유치원 등교 시간에 방문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작은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만남에는 영광고등학교 Eco-friendly 봉사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8명의 봉사단원 대부분이 유아교육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고광진 교육장은 “작은 선물이 아이들에게는 큰 행복이고, 함께한 고등학교 친구들의 작은



선행이 미래의 큰 꿈인 것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아이들에게 커다란 의미 있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내고장 도보탐사 릴레이’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순천만 습지에서 ‘내고장 도보탐사 릴레이(플로깅)’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공생의 길’ 동아리 참여 학교인 순천삼산중·순천효천고 학생·교원, 생태 중심 교육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혁신학교인 순천인안초 학생·교원, 생태 관련 활동을 하는 마을 배움터 대표·학부모 대표, 순천교육지원청 직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보호 캠페인 및 생태탐사 활동을 펼쳤다.

허동균 교육장은 “기후위기 환경 재난 시대를 맞아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지구지구를 구하는 아홉가지 행동’하는 순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 결혼

▲박계옥(신도시건축사대표)·박명자씨 장남 철오(무안군청군, 최병찬·최진숙씨 장녀 윤정(무안군청)양=11일(토) 오전 11시 무안 남약사가 이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엘렌홀(061-284-0010).